

제1장 성씨 입향고

1. 신천강씨(信川康氏)

강씨(康氏)의 득성시조(得姓始祖)는 중국 주나라 때 왕족인 강숙(康叔)의 둘째 아들 강후(康侯)로 전한다. 시조는 그의 후손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虎景)이다. 강씨(康氏)는 신라 말·고려 초에 황해도 신천(信川)·곡산(谷山)·재령(載寧) 등지에서 호족(豪族)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후손들이 고려 조정에 나아가 현달한 가문으로 알려졌다.

중시조 지연(之淵)은 고려 고종 때 몽고병의 침입으로 왕실이 강화도(江華島)로 천도할 때 시중(侍中)으로서 호종(扈從)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신성군(信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신천(信川)을 본관으로 삼았다.

신덕왕후(神德王后)를 비롯한 강씨는 조선의 개국과정에서 집권거사에 참여하여 태조 이성계의 유력한 협력세력으로서 지대한 공을 세웠으나, 조선건국 이후 제1차 왕자의 난에 일족이 화를 입었다. 보령에 입향한 시기는 고려 말엽, 정헌대부 호조판서를 지낸 강계권(康繼權)이 아들 진(鎭)과 함께 보령현으로 내려와 세거를 이루었다고 한다.

주요 인물로는 강순(康純)을 들 수 있다. 그는 조선 초기 명장으로 세조 때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으로 오위도총관을 역임하였다. 1468년 10월 세조가 돌아가고, 예종이 즉위한 후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일어난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루되어 강순 장군은 사형되고 그의 후손들은 보령현을 떠나 남포현 등지로 옮겨 살았다.

동족촌은 갈현리 산수동 일대로 강순 후손들이 300여 년간 동족마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에는 23호가 살았으나 현재 14호가 살고 있다. 1960년 이전에는 산수동 농지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했으나 현재는 7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문중 소장 문화재는 강순 장군에게 내린 교지(教旨)와 정려(旌閭)현판이 있다. 문중 재산으로는 위토와 임야가 있으며 위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시제비용을 충당한다. 문중의 친목행사로써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산수동에서 동제(洞祭)를 지내고 줄다리기 등 민속 놀이를 한다. (강웅길)

2. 능성구씨(綾城具氏)

능성구씨의 시조는 고려조에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을 지낸 존유(存裕)이다.

능성구씨의 보령입향 계기는 서천에서 세거해오던 12세 구현복(具玄福 1506~1565)이 남포현감을 지낸 연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구현복과 보령의 한산이씨 이지무(李之茂)는 남매간인 연고도 있었다.

그러나 구현복의 묘소가 서천 비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세거는 구현복의 아들(彦誠, 繼禹, 彦儉) 때부터로 보인다.

이중 구계우(具繼禹 1558~1620)는 일찍이 내중형인 한산이씨 명곡 이산보(李山甫)에게 나가 배우고 나중에는 화암서원 설립운동에 지역 유림 대표로 앞장서 노력하여 서원 창립에 큰 공헌을 한다. 이러한 공로로 구계우는 1971년 화암서원에 배향된다.

구계우의 6대손 구만원((具萬元 1689~1754)은 효자정려를 받고, 9대손 구상은(具相殷 1786~1853)은 문과에 급제하는 등 지역 사족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화암서원 향교 등에서 많은 후손들이 활동하면서 지역 유력 성씨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조선후기를 거쳐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세거해오고 있다. 주요 집성촌은 청라면 장산리 옥계리 등이었으며, 오늘날은 대천시내 등지로 많이 이거하기도 했다.

한편 구계우의 9대손 구상우(具相禹)는 당진에 세거하던 구승렬(具承烈)을 양자로 삼았는데, 구승렬의 3자 구익조(具益祖 1832~1896)는 당진의 生伯父 具승에게 다시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나 구익조는 양자만 가고 보령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후손들이 청라와 대천등지에 세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령현 지역의 능성구씨는 낭장파(郎將派)인 구현복 계열과 판안동파(判安東派)인 구익조 계열의 2개 파가 세거한다.

그리고 남포현 지역에는 또 하나의 능성구씨 낭장파가 서천 비인으로부터 이거하여 세거해 왔다. 구현복과 재종간인 구사심(具思謹 생몰년 미상)의 후손인 구전(具銓 1676~1725)의 아들과 손자들이 17세기말~18세기 초에 보령 주산 삼곡리에 들어오면서 주산 삼곡리와 웅천 등지에서 후손들이 세거해 온다.

그 과정에서 비인에 있던 구사심의 처 개성고씨의 열녀정문을 주산 삼곡리에 옮겨 세웠다.

3. 광산김씨(光山金氏)

이 고장에 입향한 光山金氏는 麗末 忠臣 金成雨 將軍이다. 高麗元宗朝 大將軍인 金周鼎의 曾孫이요, 版圖判書 金允臧의 아들로 王命을 받들어 倭寇를 討平중에 李太祖 등극이라. 不事二君으로 斬馬自盡이요. 장군의 아들 後領護軍 金南浩는 國亡父殉으로 陣地인 이곳에 살았다. 南浩의 아들 仲老가 新王朝에 진출하여 司憲府의 요직과 左贊成에 贈하였으며, 南浩의 女婿인 漢陽 趙以璠 역시 무인으로 입향하여 후손이 청라에 번창하고, 그의 묘는 金成雨 장군의 묘역내에 尙存한다.

金仲老의 아들 孟權은 金顯進 대학사로 세종대왕의 托孤遺臣으로 節義가 六臣과 같아 그의 墓下 洞名을 獨正이라 한다. 金孟權의 아들 金克成은 中宗朝의 右議政으로 文武兼全하여 光城府院君에 封하였다.

金孟權의 長女는 贈左贊成 韓山 李穉에게 출가하여 李穉가 한산이씨 보령 입향조로, 당대 자손이 정승관서로 大發하고, 次女는 吏曹參議 元州元氏 頤에게 출가하여 頤가 보령 입향조가 되어 후손이 文武繁昌하고, 三女는 龍人 李永淳에게 출가하여 入鄉大昌하였고, 金克成의 女婿는 贈 大司憲 慶州 李夢奎로 入鄉이라 5백년 世誼로 그의 墓는 光金宗山을 기증받아 兩家는 永世 敦睦하다.

李夢奎의 외손 楊州 趙存성이 입향하여 子와 孫이 三公六卿뿐아니라 그는 壯烈王后의 조부가 된다. 金克成의 從孫인 金伯幹은 詞訟法典을 著述하여 禮文의 大家이며, 金伯幹의 아들 泰廷은 刑曹參判으로 仁聖王后服制紛論을 適長三年喪함이 史乘이요. 그의 親弟인 泰國은 光海主의 生母인 恭嬪金氏를 入廟不當의 封事로 三司가 驚愕하였음은 縣誌에 生하고, 金弘達 4형제는 壬亂中 一時 戰亡으로 兵曹參議에 表忠되고 衣帶墓에 侍墓하다가 自盡한 弘達의 아들 湜은 旌孝하였다.

金海壽는 仁祖 南行의 扈聖功臣으로 우뚝하고, 全州柳氏 晷은 金克成의 5대 孫婿로 입향하여 10여 대에 걸쳐 정착지 내향동에 인물이 出出이요. 金泰國의 아들 信行은 承政院 修撰이요. 信行의 아들 命賢은 洗馬요. 孫 始光과 曾孫 弘慶은 모두 工曹參判이요. 玄孫 金啓白은 英祖朝의 司憲府掌令으로 政界의 重任이요. 金啓白의 姪婿 成均進士 全州李氏 발(土+勃)에 출가하여 입향조로 內外 隆昌하고, 生員 金啓煥은 孝友交行으로 旌門이요. 成均館博士로 영재를 배출한 金尙欽은 대학자로 그의 문인으로 조선말기 영의정 趙斗淳이 유명하다. 5대진사 복명이집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리하여 金成雨 將軍 入鄉 이래로 600여 년에 걸쳐 茲土之主人이며, 이 고장의 名門 大姓이 거의가 金成雨 將軍의 內外後孫이라 일러온다.(金在燮) 『대천시지』 1995.

4. 경주김씨양주목사공파(慶州金氏楊州牧使公派)

경주김씨 양주목사공파의 보령입향조는 김한(金漢)이다. 양주목사공 김대(金玳)는 김한의 조부이다. 시조는 경순왕이며, 중시조는 인관(仁瑄)인데, 고려 예종조에 문과장원하고 검교태자태사(檢校太子太師)에 올랐으며, 양주목사공 대(玳)는 인관의 8대손이다. 대(玳)는 관직이 통정대부 양주목사에 이르렀다. 김한(金漢)은 호가 우재(愚齋)여서 오랫동안 그 후손들을 우재공파로도 불러왔으나, 또한 양주목사공파로 불리기도 한다.

한(漢)은 세종조에 문과에 올라 관(官)이 통훈대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녹보좌명원종공신(錄保佐命原從功臣)이었고, 단종조에 사간원 사간(司諫)에 제수되었으나 불사(不仕)했고, 1452년 계유정란(癸酉政亂)시에 관직을 버리고 현 보령지역에 은둔했다.

초부(樵夫)와 어옹(漁翁)으로 산해(山海)를 벗삼고 지내며 은둔 생활을 하던 중 김한은 통분한 나머지 양광(佯狂)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단종의 손위(遜位) 소식을 듣고 상분(傷憤)이 병이 되어 1456년 사망했다. 생전에 한(恨)서린 충절의 시를 지어 읊으면서 지냈다고 한다.

김한의 아들 자돈(子惇)은 조산대부(朝散大夫)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에 이르렀다. 자돈은 육오남(育五男)하니 윤보(允輔), 윤형(允衡), 윤충(允忠), 윤상(允祥), 윤신(允愼)으로 이들이 양주목사공파의 오파(五派)를 이루었다.

윤보는 생원으로 입사(入仕)하여 음보로 한성참군부사직(漢城參軍副司直)을 거쳐 담양부사에 이르렀다. 아들 극순(克淳)은 추은(推恩)으로 증직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극순은 취서(就銜), 취련(就鍊), 취용(就鎔)의 3남을 두었다.

윤형은 세종23년(1441)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정랑을 지냈다. 극용(克龍), 극구(克龜) 극인(克麟)을 두었다. 극용의 4대손인 수강(守岡)은 승록대부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지냈다.

근대에 들어와서 남포지역의 대표적인 성씨로 ‘남포5성(藍浦五姓)’과 ‘안(安)·황(黃)·윤(尹)·최(崔)’가 전하고 있는데, 남포5성에는 고려~조선 초기에 입향하여 번성한 풍천 임(任), 남포 백(白), 경주 이(李), 경주 김(金), 보성 오(吳)씨를 말함이니, 경주김씨는 입향 이후 번성하여 이 고장의 대표적 성씨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경주김씨 양주목사공파는 웅천읍을 중심으로 한 보령 일원과, 부여, 서천, 청양, 홍성 그리고 서울 대전 등지에 세거하며, 전국에 1만여 세대에 3만여 명이 분포되어 살고 있다. 김효기, 「慶州金氏楊州牧使公派 藍浦 入鄉考」

『보령문화』 11. 2002.

5. 무주김씨(茂州金氏)

보령 청소면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김씨들이 수백 년 세거해왔는데, 현재는 많은 수가 떠나고 지금은 약 50여 호 정도 살고 있다.

무주 김씨의 보령입향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해서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김선지(金善之)의 차자 김해은(金海隱)이 호서 안면도로 피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무주김씨는 무주백(茂州伯)으로부터 대대로 수원 청룡산 아래에 살면서 잠영(簪纓)의 씨족으로 전해왔다. 김선지는 문종조에 과거급제하고 1451년 벼슬이 집현전 교리로 18학사와 함께 단종의 탁고(託孤)의 명을 받은 인물이었다.

1453년 서울 청풍계(淸楓溪)로 이사하여 재종조 김자무(金自武)와 서로 의지하니, 자무는 곧 박팽년의 사위였다. 김선지는 박팽년과 사돈간의 정의(情誼)에다 친교까지 깊어졌다.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자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들은 복위 운동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었고, 모두 참화를 입게 되었는데 김선지도 아들 형제와 함께 의금부 문밖에서 대죄하였다.

김선지의 작은 아들인 해은은 몰래 빠져나와 노비인 충록(忠祿)과 함께 서산 안면도로 숨어들었다. 이때 김해은은 18세, 노비 충록은 21세였다.

얼마 후 김선지의 가문은 김선지 부자가 처형되는 등 멸문의 화를 입었다. 김해은은 안면도에서 노비 충록과 함께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품팔이 노동을 하다가 서당을 열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이어서 혼인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비 충록의 헌신적 충성은 김해은이 살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김해은은 이 노비를 의형제처럼 여기며 살았고, 항상 충형(忠兄)으로 부르면서 의지하였다. 40여 세가 넘어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얻은 후 1491년 보령·남포의 오서산과 성주산은 산기(山氣)가 수려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보령 경내인 청라동에 들어와 은거하였다.

김해은은 숨어살면서 죽을 때까지 신분의 탄로가 두려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 그의 호인 해은(海隱)만이 전해올 뿐이다. 그의 무덤은 청소면 재정리 능동에 있으며, 그의 후손들이 보령에서 세거해오면서 무주김씨 일문을 이루었다.

6. 밀양박씨 성은공파(密陽朴氏星隱公派)

보령시 미산면 개화리·도화담리를 중심으로 밀양박씨들이 세거해 왔다. 조선후기 경종조의 신임사화(1721~1722)로 노론 세력이 몰락하면서 노론세력과 가까웠던 규정공파(糾正公派) 밀양박씨인 박동주(朴東胄)는 청양현감을 역임한 것이 인연이 되어 모친을 모시고 청양에 은거하며 모친을 모셨으며, 이에 그 동생인 박세주(朴世胄, 1641~1725)도 형과 모친을 따라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령 도화담에 정착하고 은거하였다.

박세주의 호는 정수재(靜水齋)로 송시열이 지어준 것이다. 이로서 밀양박씨 성은공파가 보령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박세주의 고조는 낙촌 박충원(駱村 朴忠元)으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시호가 문경(文景)이며, 부친 성은 박승건(星隱 朴承健)은 사헌부 장령 상주목사 등을 역임했으며, 우암 송시열과 교분이 두터웠다. 중형인 승휴(承休)와 함께 대과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갔을 뿐 아니라 효도가 독실해서 함께 효자정려를 받았다.

박승건의 셋째 아들인 박세주도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도로 정려를 받았는데, 도화담에 승건·세주 양세의 정려가 있다. 승건의 정려는 이견해 온 것이고, 세주의 정려는 보령에서 받은 것이다.

세주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후진을 교육하고 풍속을 교화하면서 처사적 삶을 살았으며, 그의 아들들인 台錫 昌錫 大錫 喜錫 端錫의 후손들이 계속 보령에 세거하고 있다. 이후 박승건의 묘소와 신도비도 정려와 함께 도화담으로 옮겨와서 성은공파를 형성했다.

한편 개화리 지갯굴 마을에도 비슷한 시기에 예산에서 박승건의 형인 승휴 후손의 봉례공파 밀양박씨가 이주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

7. 남포백씨(藍浦白氏)

남포 백씨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남포현에 세거해 온 성씨로, 시조는 신라 헌안왕(857~860)때 삼중대광좌간의대부(三重大匡左諫議大夫)를 지내고 시호가 익렬(翼烈)인 백중학(白仲鶴)이며, 그는 뜻한 바 있어 벼슬을 내놓고 고향인 남포에 돌아와 후진 양성으로 일생을 마치며 남포현 일역에 학문의 길을 처음으로 정착시킨 유현이다.

그리고 중학의 손자 소장(昭章) 광원(光元)은 신라 경문왕(861~875)때 광록대부(光祿大夫)

문하시중(門下侍中) 정당문학(政堂文學)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고운 최치원 선생이 비문을 지었다고 전하며, 그의 묘소는 남포현 양각산 서쪽 동막동에 후손 백이정의 묘와 상하로 한 곳에 현존하고 있으며, 후손들은 이곳을 선산으로 지금까지 수호해 오고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담암(淡巖) 백문절(白文節)은, 시호가 문간(文簡)으로 고려 고종때, 국학대사성(國學大司成)과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를 지내고 남포백씨의 중시조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상당군 백이정(上黨君 白頤正)은 고려 때의 성리학자로, 호가 이재(彝齋) 시호는 문헌(文憲)으로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10여 년간 머무르며 성리학을 연구·통달하고 돌아와 이제현, 박충좌 등에게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성리학을 전파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만년에 남포현에 귀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다가 1323년에 서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시조 백문절의 5대손 시호 문민(文愍) 호 정재(靜齋) 백유공(白惟恭)의 후손부터 장자울(웅천읍 구룡리)을 중심으로 한 판서공파(장동), 마차울(웅천읍 구룡리)을 중심으로 한 첨추공파(차동), 월곡(남포면 월전리)을 중심으로 한 참봉공파(월곡), 양촌(남포면 양기리)을 중심으로 한 부사공파(양촌), 기동(남포면 양기리)을 중심으로 한 충청공파(기동), 동산절(미산면 삼계리)을 중심으로 한 현회공파(복동) 등 6개 파가 남포현에 집성촌을 이루면서 번성해 왔으며, 이외에도 경북 예천, 전북 전주, 충남 서천 등지에 집성촌을 형성했다.

남포백씨는 신라 때는 시조 중학, 고려시대에는 문절, 문절의 자 이정을 배출했고, 조선 시대는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한 백유공, 임진왜란 때 임진강 전투에서 칠십의 노령으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백인감, 고종조에 효로써 사헌부 감찰에 증직된 백태진, 그리고 항일유림 추장 백낙관 열사, 옥재 백관형 의사, 수보 백만기 의사 등의 충신, 유학자, 열사, 효자 등 을 배출하면서 남포 관향을 지키면서 1,200여 년을 세거해왔다.

(백승운)

8. 평산신씨(平山 申氏)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兼)이다. 고려 말엽 15세손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여 19개 파종이 형성되었다. 평산신씨가 보령에 정착하게 된 것은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있고 보령거주 평산 신씨의 90% 이상이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 중 하나는 약 70% 이상 차지하는 한성윤공파 신정(申禎)의 후예들로서 400여 년 전

임진왜란 중에 오천면 오포리로 들어왔다. 신정은 신송겸의 22세손이고 그는 중시조 신하(申夏 : 고려 때 한성판윤)의 7세손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이 사헌부감찰 현감에 이르렀고, 일찍이 관직에서 물러나 유유자적하던 중 임진왜란을 피해 오서산(烏棲山) 서쪽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신선처럼 살았고 사람들은 그가 살던 곳을 선동(仙洞 혹은 蟬洞)으로 불렀다. 신정 일가는 중시조 하(夏)와 6대조 가배(可培)의 묘가 함경도 지역에 있어 이곳에서 이주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그의 당숙과 종조부 묘가 부여 홍산에 있는 것을 보면 인근 부여와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묘는 오천 오포리 선동마을에 있다.

그는 5명의 아들(鵬, 鴻, 鳳, 鶴, 鵬)들을 두었으며, 그 후손들이 오천면 선동 마을과 환경이 흡사한 청라면 음현의 선유동, 신산리, 주교면 신대리와 대천의 화산동 큰골(大谷:평산 신씨의 본관 지역인 평산에도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음) 등에 거주하면서 신준희 보령시장 등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음 보령거주 평산신씨 중 20% 정도가 사간공파 후예들이다. 이들은 조선 중후기 오삼전면 사가리(청라 황룡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처음 이주하여 온 사람은 영조 때의 신광태(申光泰, 1756~1788)로 사가리마을에 묘소와 비가 전해지고 있다.

그의 아버지 신위(申暉)는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헌에 오른 인물이며, 경기도 양주 사람이다. 신광태가 언제 이주하여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생존연대로 보아 18세기 중·후반으로 짐작된다. 그의 사위는 김이철(金履澈)로 역시 청라 장현리 안동김씨 입향조이므로 이들은 함께 청라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신광태의 처남은 한산이씨 이학영(李學榮)으로 천북·결성지역에 연고를 가졌으며, 이학영의 손자가 고종 때 영의정 이경재(李景在)이다.

신광태의 아들 신재진은 벼슬이 의영고 직장(義盈庫 直長)이었고 재진의 셋째 아들 석봉(錫鵬)은 효행으로 정려를 받고, 또 다른 아들 석룡(錫龍)은 사마시에 급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삼전면 사가리 일대와 장현리에 이주하여 그 지역 솔밭(장밭-한자이름 長峴 혹은 長田)을 개간하여 농토를 일구어 터전을 만들면서 오늘날까지 세거해왔다. (신재완)

9. 보성오씨(寶城吳氏)

보성오씨의 시조는 오현필(吳賢弼)인데, 그는 1216년(고려 고종3)에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한 공으로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졌고, 후손들이 본관을 보성으로 삼게 되었다. 그후 4세 존성(存誠)이 보성군에 봉해졌고, 12세 몽을(蒙乙)이 조선 개국공신으로 보성군에 봉해졌으며, 13세 자경(子慶)은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 보산군(寶山君)에 책훈(策勳)되었다.

자경의 둘째 아들인 14세 연찰(延札)은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남포파의 증시조이다. 연찰의 장자 희(希)는 사옹원 직장으로, 연산군 때인 1500년경 보령현 청라동 월치(月峙)로 은거하여 보령 세가의 시초를 마련했다.

연산군 때 정치가 혼란함에 서울에서 생활할 상황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앞으로 자손의 보전을 위하여 청라동 나원리 월치(月峙)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3대를 음직(蔭職)으로 벼슬하며 살아왔는데, 당시 권세가의 극성(현재 3대의 묘소가 실전 됨)을 피하여 18세 통덕랑(通德郎) 영필(永弼)이 청라를 떠나 남포현 고읍면 신기리에 정착하여 한사족(寒士族)으로 세거해왔다.

21세 언방(彦邦)이 선략장군을 역임했고, 23세 형(訶)이 통훈대부 황산찰방으로 수안파를 형성했고, 헌(獻)이 외성파, 영(詠)이 내성파, 인(認)이 평장파를 형성하며 남포현 지역에서 후손들이 번창했으며, 오늘날도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오영교(吳盈敎) 등을 배출하는 등 이 고장에서 계속 세거하고 있다. 한편 오사권(吳史權)은 고종 7년(1870) 식년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오상순(吳相舜)·오정희(吳鼎熙) 부자는 효행으로 정려를 하사받고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되었다. (오현규)

10. 파평윤씨(坡平尹氏) -주산면 증산리 송림 -

주산 증산리 송림의 파평윤씨의 시조는 太史公 신달(莘達)이고 5세는 문숙공(文肅公) 관(瓘)이다. 세조왕비 정희왕후, 중종왕비 장경왕후, 명종왕비 문정왕후가 모두 같은 일족이다. 명종 때의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었던 을사사화(1545)를 피하여 많은 일족들이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통덕랑 윤황(尹璜)이 송림에 들어왔다.

윤황은 후사가 없어 형의 아들인 필은(弼殷)을 양자로 삼았다. 필은의 친형인 명은(鳴殷)은 부친이 돌아가시자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전라감사를 그만두고 양자간 동생이

있는 송림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나 그는 사후 경기도로 갔고, 필은만이 송림에 남았지만 후손이 없어 친척 성(言+省)을 양자로 해서 아들 사주(師周)를 낳았다.

사주는 3명의 부인을 얻었지만 후사를 두지 못했다. 사주의 세 번째 부인인 전주이씨는 청상의 몸으로 수원에 있는 먼 친척집에 가서 7일간 단식하며 애걸하여 9세의 광수(光壽)를 입양할 수 있었다. 광수가 아들을 하나 두었으니, 휴진(休進)이었다.

휴진은 보령에 입향한 장수황씨 황이하(黃履夏)의 딸과 결혼하여 기(錡), 호(鎬), 전(銓)의 세 아들을 두었다.

이 세 아들이 현재 송림 과평윤씨의 3과를 이룬다. 첫째와 셋째과는 송림과 서면 마량리 등에 근거지를 두고, 경향 각지에서 살며, 둘째과는 논산에 근거지를 두고 역시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과평윤씨통덕랑공과세보』 1999.

11. 경주이씨 익재공파(慶州李氏益齋公派)

익재 이제현의 현손인 이숙지(李倣祉)는 단종2년(1454) 음사로 석성현감이 되었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다음 해 홍산 남쪽 마전곡(麻田谷)에 은거하다가 사망하였다.

이숙지의 아들 손수(孫秀)는 이인도찰방, 손자 구령(龜齡)은 생원으로 연산조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은거했으며, 증손 이전(李筌, 1500~1563)은 사마시에 급제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류들이 화를 입는 것을 보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남포현 내동(內洞, 또는 安洞)에 은거했다.

풍천임씨 임효손(任孝孫)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요년(堯年)과 순년(舜年)의 두 아들을 두었으며, 요년의 아들들인 珽 瑋 璘 璞, 순년의 아들들인 据 瑜 琛의 후손들이 보령지역 경주이씨 익재공파 중의 마곡공파를 이루어왔다.

18세기 후손 이예환(李禮煥)을 중심으로 미산에 용암영당(삼사당)을 건립하고 익재 영정을 모시고 제향하였다.

19세기 초 신안사(新安祠)가 건립되었을 때는 신안사에 주자 송시열 한원진 권상하 백이정과 함께 이제현이 제향되기도 했으며, 조선후기 이정영 이학영 등의 학자와 이규덕 등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남포현 지역의 유력 성씨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12. 우봉이씨(牛峰李氏)

보령 우봉이씨 입향은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연산군 때인 갑자사화(1504) 직후 당시 남포현 늑전리에 들어온 이승춘(李承春)과, 경종 2년(1722) 신임사화와 관련하여 보령현(주포면 마강리쪽)에 들어온 이관(李縉)의 자손이다.

먼저 들어온 이승춘은 이길배(李吉培)의 손자다. 이길배는 1441년(태종11)에 문과로 등제하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는데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인물이다. 이길배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과 손자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는 등 집안이 화려했다.

보령에 낙향한 이승춘은 이길배의 셋째 아들 연(埏)의 아들이다. 갑자사화에 집안이 피해를 입었고 이승춘도 그 영향으로 낙향한 것이다. 이승춘은 대사성으로 연산 갑자에 옥당에서 시사를 논했다고 했는데 직후 외직인 평안 병사로 나갔다가 바로 해직되어 이곳으로 낙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으로 오게 된 구체적 객관적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전설에 의하면 연산군에게 득죄하고 황급히 피신하는데 가족을 모두 버린 채 어린 큰손자 종선(從善) 하나만을 업고 배를 타고 서해로 내려오다 서해에서 동달봉이 유독 뽕족하게 보이므로 저 산 아래에 가면 내 한 몸을 숨길 수 있겠다 하고 찾아 온 곳이 늑전이라고 한다.

그 후로는 현손 이응삼(李應參)이 임진란에 참여했고, 병절교위, 봉사, 직장의 벼슬에 나가는 등 몇 사람만이 낮은 한직에 이름을 올렸을 뿐, 대체로 한미하게 이어져 왔다. 이응삼의 딸이 풍천임씨 임경문(任慶門)과 혼인하여 그 아들 임시제(任時濟)가 외가를 따라 늑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자손들이 많아서 보령지역에 거주하는 풍천임씨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말기 이호정이 효자 정려문을 받았고, 이호정의 손자들이 모두 학문이 높았으며, 고종의 총애를 받던 권신인 환관 강석호가 임오군란에 미산면 별곡리에 피신했을 때 이호정가와 쌓여진 인연으로 그 힘에 의하여 작은 한 자리라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전에 쇄도하기도 했다 한다.

지금은 이승춘의 자손들이 거의 떠나고, 현재 보령지역에서 살고 있는 집은 모두 30호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령현(주포면 마강리쪽)에 와서 살게 된 이관(李縉)도 이길배의 자손으로 그 집안이 조선 중후기 서인, 특히 노론의 중심 축이 되어 격변하는 정국 속에서 경종 때의 신임사화의 영향을 받아 보령현에 낙향한 것이다.

그 후 자손은 한직에 머물게 되었으나 이관의 7대손 봉구(鳳九)는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수사가 되었고 그 후 이 지역을 떠나 상가지향(桑梓之鄉)인 용인으로 갔으며 그의 아들 5형제 중에 한국 사학의 태두라 불리는 두계 이병도를 비롯한 많은 인물이 나왔다. 이관의 자손들은 지금은 보령 지역을 거의 떠났고 한 두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덕영)

13. 전의이씨 효익공파(全義李氏孝翼公派)

전의 이씨는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4대 화벌(華閥)로 번창한 성씨로 알려졌다. 시조는 고려건국에 공을 세운 태사(太師) 이도(李棹)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준민(李俊民)은 남명 조식의 외손으로 성리학자로서 좌참찬의 지위에 오른 명신이었고, 진주의 임천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가 효익(孝翼)이어서 준민의 후손들을 효익공파로 칭한다.

준민의 증손인 이지형(李枝馨, 1608~1669)은 무과 급제 후 30대 초반에 남포현감을 3년 역임하며 치적을 쌓으면서 보령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이지형은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삼도통제사에 올랐으며 영국원종일등공신(寧國原從一等功臣)에 올랐다. 이지형의 후손 중 세선(世選)·의풍(義豐)·방일(邦一)·윤성(潤成)·완식(完植)·응식(應植)·희경(熙綱)·희승(熙昇)·교헌(教獻) 등은 어영·총융·훈련·금위대장 등을 역임하여 소위 9대장(大將)이라 칭한다. 이지형의 장자 이세선(李世選, 1628~1698)은 남포현의 사족인 황대명(黃大鳴)의 사위가 되었다.

황대명은 본관이 장수이며, 황희의 후손으로 그의 조부 황즙이 호서로 낙향한 후 부친 황정직이 남포현 광암에 정착하면서 여기에 세거하게 된 인물이었다. 이세선도 무과로 나아가 병조참판 어영대장에 오른 인물이다.

이세선의 장자인 이창조(李昌肇)는 통제사를 역임하고 그 후손들이 서울에서 세거하게 되었지만, 차자인 이광조(李光肇, 1662~1729)는 결혼 후 외가가 있는 남포에 살면서 1689년 생원시에 급제하고 영릉 참봉 산음현감 등을 역임하고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광조의 후손들이 남포현 봉덕리 대덕굴 등지에 세거하면서 전의이씨 남포파를 이루게 되었으며, 봉덕리 대덕굴, 제석리, 비인 남당리 등에 선산을 마련하면서 이 고장에 터전을 가꾸어왔다. 남포현에서 가장 오래된 묘소는 비인 남당리 선산의 이광조 묘소이다.

지형의 후손 9대장 중 남포현 출신 이광조의 후손으로는 무과에 급제하고 어영대장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증직된 이방일(李邦一)이 있고, 방일의 손자인 응식(應植)은 총융사·훈련·어영 대장을 역임하고 판의금부사에 올랐으며, 경숙(敬肅)의 시호를 받았고, 희승(熙昇)은 총융사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9대장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황해수사를 지낸 방오(邦五), 충청수사를 지낸 희완(熙完) 희눌(熙訥) 등 여러 명의 장신(將臣)을 배출하면서 대대로 남포장신가(藍浦將臣家) 인현장신가(仁峴將臣家)로 불리며 남포전의이씨는 장신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14. 전주이씨 완원군파(完原君派)

전주이씨 완원군파의 보령 입향조는 부흥도정 이몽열(傅興都正 李夢說, 1542~1607)이다. 완원군은 성종(成宗)의 셋째 아들이며, 이몽열은 완원군 증손 중의 한 사람이다. 완원군의 증손자 7명은 임진왜란과 이몽학의 난, 정유재란 등 국운이 혼탁한 시대를 전후하여 서울을 떠났다. 이몽열은 충청도 보령현 향장(鄉庄)에서 터전을 마련하여 이때부터 보령현(保寧縣)은 부흥도정 후손들의 터전이 되었다.

이몽열은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임진왜란 무렵에 처가의 인연으로 보령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몽열의 장인은 광산김씨 김인서(金麟書)이며, 처조부는 광성부원군 김극성의 형인 김극신(金克愼)이다. 출생 후 부흥수(傅興守)에 봉해졌다가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이 있어 부흥도정(傅興都正)에 오르고, 이몽학의 난에 공이 있어 청난훈원 중2등(淸難勳原從二等)에 선록(選錄)되었다.

만년에 보령에서 은거하며 조존성(趙存性), 이상우(李商雨, 이산보의 손자)와 도의의 교우를 맺고 함께 향약 등을 강론하며 주민 교화에 힘썼다. 사후에는 파주의 선영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이완(李琬)의 후손들이 번창하며 보령지역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오늘날 보령지역 완원군파의 가장 선대 묘소는 이완의 묘소이다.

이완의 사위는 채진후(蔡振後)로, 그의 손자 팽윤(彭胤)·성윤(成胤)·정윤(禎胤)·명윤(明胤)이 문과 및 사마시에 급제했을 뿐 아니라 문장으로 유명하고, 현손 체제공(蔡濟恭)은 영의정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이 모두 보령과 청양에 연고를 가지게 된 것은 외가인 완원군파 전주이씨와의 인연이었다.

이완의 후손들은 보령향교와 화암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사족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지역 사족사회의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완의 후손으로 사마시에 급제한 사람으로는 이설(李설), 명재 윤증의 제자인 이세욱(李世燾)·이창섭(李昌燮)·이재동(李在東)·이명호(李明鎬)가 있으며, 이중 이창섭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세현(李世炫)은 천휴당 이몽규를 화암서원에 배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한말 일제시기에 이석구(李錫九)는 치가(治家)하여 재산을 모아 의평농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의 많은 궁민들을 구휼하기도 했으며, 서울에서는 동덕여대와 성균관대학 등에 거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육영사업에 공헌한 인물이다. 현재도 청라와 대천지역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며 이시우 보령시장을 배출하는 등 많은 후손들이 번창하며 세거해 오고 있다.

15. 청해이씨(靑海李氏)

청해이씨의 시조는 이지란(李之蘭, 1331~1402)이다. 이지란은 여진족 출신으로 1371년 고려에 귀화해 북청에서 거주하면서 이씨 성과 청해(靑海)를 본관으로 하사받았다. 이성계와 함께 외적 격퇴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올랐다.

청해이씨의 보령입향은 이지란의 9대손 이핵(李翮, 1635~1702)으로, 그가 보령에 입향하게 된 것은 이승효(李承孝)의 사위가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승효는 본관이 경주이고, 천휴당 이몽규의 증손이었다. 핵은 신민(信民) 유민(裕民) 인민(仁民)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중 유민((1658~1729)은 문과에 급제하고 홍주목사 충주목사 등을 거쳐 영조 때 공조판서에까지 올랐으며, 정민(貞敏)의 시호를 받았다.

유민의 처가는 남포현 황동(현 웅천 소황)의 강릉최씨 행원(行遠)이어서 보령 경주이씨가의 외손이며, 남포 강릉최씨가 사위가 되어 그의 후손들이 보령에 정착하게 되었다.

유민의 아들 용(榕), 증손 우규(羽逵)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등 지역 사족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유민의 묘소는 웅천 소황리에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이 지은 시장비(諡狀碑)와 함께 있으며, 부친 핵과 형인 신민의 묘소는 보령 죽정동 독정에 있다. 죽정동 청해이씨의 선산은 광산김씨 경주이씨 선산과 동일지역 내에 위치하며, 유민의 묘소도 웅천 강릉최씨 선산 내에 위치한다.

입향의 연고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남포면 소송리와 사현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대천 등지로 많이 이주한 상태이다.

16. 한산이씨(韓山李氏)

한산이씨의 보령 입향 시초는 이치(李穰)이다. 이치는 보령의 광산김씨 김맹권의 사위가 되면서 보령 입향의 시초를 마련했는데, 그는 가정 이곡(李穀)의 6대손, 목은 이색(李穡)의 7대손이다.

그의 가계는 이색 이후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 계속 배출되었고, 특히 목은의 손자이자 이치의 증조부인 이계전(李季甸)은 1453년의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정인지 등과 함께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가문의 영예는 조금씩 퇴색하여 부친 장윤(長潤)과 이치는 현감과 현령에 머물렀다. 이치는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종조부 이파(李坡)의 성종 때의 폐비사건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기도 했고, 수원통판을 지냈다.

그는 그 선대이래로 주로 서울에 거주했으나 처가가 있는 곳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의 후손들이 보령에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아들인 지번(之蕃) 지무(之茂) 지함(之菡)과, 손자 산해(山海) 산보(山甫), 증손 경전(慶全) 등이 학문과 관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보령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명문거족이 되었다. 또 그 배경에는 보령지역에서 먼저 정착하여 유력성씨 역할을 하던 광산김씨가 있었다.

오늘날까지 보령지역에서는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아계파(鵝溪派), 이산보를 중심으로 한 명곡파(鳴谷派), 이지함을 중심으로 한 토정파(土亭派)의 3파가 주류를 이루면서 세거해 오고 있다.

아계파와 명곡파는 예산 아산 등지로 일부가 이주하여 그 곳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보령의 아계파 중에는 아계의 손자인 이무(李袤)를 중심으로 하는 과암공파(果庵公派)가 주류를 이루기도 한다.

보령 한산이씨는 고만에 집단 가족묘소를 마련하고, 화암서원을 건립하여 이지함과 이산보를 배향하면서 문중 위상의 상징적 구심점을 만들었다.

한편 보령의 곁인 결성지방에는 이치의 형인 이질(李秩)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또 하나의 한산이씨 배경지가 되었다.

17. 풍천임씨(豐川任氏)

시조 온(溫)은 중국 소흥부 자계현 출신으로 가규(可珪), 비(備), 도(徒), 천유(天裕)로 자손이 이어지면서 6세손 주(澍)가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로 건너와 경상도의 추동등 안찰사를 거쳐 어사대부, 감문위 장군 벼슬을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 은퇴한 후 풍천(豐川)으로 본관을 받음과 동시에 제택을 하사 받아 풍천임씨 일문을 이루었다.

그후 7세손이 두 형제로서 자송(子松)을 중심으로 한 백파(부원군파)와 자순(子順)을 중심으로 한 중파(전서공파)로 크게 나뉘어 풍천임씨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왔는데, 중파는 다시 두 형제로 나뉘어 향(珦)을 중심으로 한 정승공파(남포파)와 진(璿)을 중심으로 한 사윤공파(아산파)로 세계를 이어왔다.

고려 공민왕 때 정승을 지내던 향(珦)은 요사한 중 신돈의 실정에 맞서 직간, 항소하다가 홍성지방에 있는 고구도라는 섬에 유배된 후 다시 남포면의 죽도에 유배되었는데, 고려가 망하고 새로 일어난 조선 조정에서 돌아와 벼슬할 것을 청하였으나 고려의 신하가 조선왕에게 어찌 충성할 수 있겠는가 하고 초야에 묻혀 살기로 결심하였으며, 이 때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주산면 동오리 오상태라는 곳인 바, 명덕봉(明德峰)이라는 뒷산의 이름이 좋고, 마을 앞에는 화산내의 풍부한 물과 기름진 들녘이 넓어 자손만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이곳을 택하였다고 하는데, 죽은 후에는 웅천읍 평리 동막동(매바위 안쪽에 있으며, 오상태와는 약 1km 거리임)에 묻혔으니, 이로부터 그 자손들이 주산면, 미산면, 웅천읍에 널리 퍼져 600년을 살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보령지역에는 현재 약 7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대천시지』, 1995.

18. 한양조씨(漢陽趙氏)

漢陽趙氏는 高麗期 中書事 趙之壽를 始祖로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살고 있다. 보령시에서는 동대동, 화산동에 많이 살고 있다. 보령지방에 정주하게 된 시기는 조선 중엽 선조 이후로 추정된다.(서기 1610년대)

중종 14년(1519) 己卯에 新進士類이며, 道學政治의 구현을 위하여 새 정치를 실천하던 靜庵 趙光祖 一派가 士禍를 입게 되어 流配 削奪官職, 나아가 賜死까지 당하는 滅門의

慘禍를 입게 되었다.

당시 신진사류이며 靜庵의 친족이던 遯溪 趙弼이 楊州로 피신하였가 다시 남하를 피하여 차자 希雄을 데리고 업고 걷고 변장하여 湖西의 烏棲山中(現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에 이르러 定着, 숨어서 살게 하고 본인은 서울로 돌아가 화를 입었다. 이곳을 “子孫의 永久保存之地로 삼고 오직 淸貧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라는 敎訓을 남겼으니 趙氏家訓이 되기도 한다.

사화는 끝나고 前官 등은 復官 追贈되었으나 후손들은 淸廉潔白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官界진출은 바라지 않았다. 希雄의 손자인 石川 元方이 보령시 동대동 圓山(두리미)에 이주하였으니, 보령시 거주의 호시이며, 증손 聖豪, 命豪 형제가 명천동 명암에 이거하였다.

(1610년대 추정) 후손 중 前府使 囿春, 司果 龜漢, 兩理齋 堧, 晚寤齋 城, 野庵 秀, 蘇山 一元 등 저명한 한학자를 배출하였다.

보령시 화산동 굴고개에는 永慕齋라는 한양조씨 祠宇가 건립되었으며, 그 앞의 墓村을 기리는 碑에는 화산동 정착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趙傲行)

『대천시지』, 1995.

19. 장수황씨(長水黃氏)

장수황씨 보령 입향의 시초는 황즙(黃菴, 1560~1613)의 호서 비인현 입향에서 시작된다. 5대조는 세종 때의 영의정 황희(黃喜)이다. 황즙의 당숙인 황윤길(1536~1592)은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가 병조참판에 이른 인물이며, 황즙이 성장하고 배우는 데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윤길이 정사(正使)로 일본 사행길에 올랐을 때 황즙은 윤길(允吉)을 따라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때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충청병사 황진(黃進)도 황윤길의 군관으로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황윤길의 도요토미 침략 의도를 경계하는 복명은 우리 역사에 유명한 사실이다.

황즙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난을 피하여 호서의 비인현 저동(현 판교면 저산리)으로 낙향했다. 이곳을 택하게 된 동기는 그의 처가인 풍천임씨가 이미 저동에 입향하여 정착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거주지 이전의 전형적 형태인 외가나 처가집 근처로의 이동이었던 것이다.

비인현 저동에서 황즙은 칠우당(七友堂)이라는 집을 짓고 독서하며 은거하고 있던 중에, 정유재란 때 총관사 한효순(總管使 韓孝純)의 부탁으로 군량미 600여 석을 수집하여 보냈다. 이 공으로 통훈대부 예빈시직장의 벼슬을 받았으며, 전쟁 후 전후 복구를 위하여 국가에서 철을 모으는데, 충청도순찰사 장만(張晩)의 부탁으로 철 4천 근을 수집하여 상납하였다.

황즙의 아들 황정직(黃廷直, 1581~1657)은 부친의 묘소를 현재의 웅천읍 대창리에 정하고, 비인 저동을 떠나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정착하였다. 이때가 1616~1622년 사이였다. 이를 계기로 장수황씨의 보령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지역에서 장수황씨와 유대를 강화했던 사족 중에는 서천의 豊川任氏, 豊壤趙氏, 杞溪俞氏, 韓山李氏, 남포현의 光州安氏, 江陵崔氏 全州李氏(임영대군파), 全義李氏, 坡平尹氏 靑海李氏 등이 있다. 특히 증산리 과평윤씨나 남포의 전의이씨는 장수황씨의 외손들이었는데, 전의이씨는 대대로 많은 장신(將臣)을 배출하여 남포장신가(藍浦將臣家)로 알려졌다. 장수황씨는 황정직과 황유업이 17세기~18세기 초에 효자정려를 받는 등 지역 사족 사회의 일원으로 세거해오고 있다.

오늘날 장수황씨의 집성촌은 웅천읍 황교리 광암, 웅천읍 구룡리 화망, 웅천읍 대창리 벽동, 부여군 입천면 탑산리, 서천군 판교면 일대 등이다. 그러나 황교리 광암은 공군 사격장 건설로 대부분 이주한 상태이다.

황의천. 「장수황씨보령입향교」 『보령문화』 16. 2007.